

## 로직과 아로직 관계를 버림.

오늘 밥다다는 위대한 기부자이며 축복의 공여자인 그의 특별한 영혼들을 보고 있다. 위대한 기부자와 축복의 공여자가 되는 바탕은 위대한 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버린 자가 되지 않고는 너희가 위대한 기부자나 축복의 공여자가 되지 못한다. 위대한 공여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모든 보물들을 아낌없이 다른 영혼들에게 주는 이가 됨을 의미한다. 이기주의를 초월한 영혼들만이 위대한 기부자가 될 수 있다. 축복의 공여자는 자신이 미덕과 힘과 지식의 보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끊임없이 경험할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모든 영혼들에 대해 고귀하고 순수한 소망을 가질 것이며, 항상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고귀한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런 고귀한 소망을 가진 이들만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며, 축복의 공여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위대한 버린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버림의 의미에 대해서 들었다. 첫째의 버림은 너희의 몸에 대한 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육체와의 연결을 버리는 것이다. 몸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측면은 신체 감각과의 관계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24시간 동안 신체감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단계는 감각의 정복자가 되고 그것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진 이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다. 셋째 측면은 너희의 몸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는 로직과 아로직의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너희들은 이 두 종류의 관계에서 위대한 버린 자가 되어야 한다. 즉, 너희들은 애착의 제거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종류의 관계에서 애착의 제거자가 되는 징표는 어떤 이에 대해서도 혐오감이 없을 뿐 아니라, 애착도 없으며 의존하지도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의 결함이나, 너희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 거둬서 너희의 지각을 방해할 것이다. 너희들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과 말과 꿈에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마음 속에 애착을 갖거나 의존하는 영혼은 자동적으로, 심지어는 너희의 의지에 반하여 너희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 영혼은 미덕이나 사랑으로 너희의 지각을 끌어당길 것인 반면, 너희가 싫어하는 영혼은 너희의 이기적인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한 탓에 너희의 이기적인 지각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 이기적인 동기가 충족될 때까지는, 그 영혼에 대한 너희들의 카르마의 계정과 반대되는 생각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혐오의 씨앗은 이기적인 동기의 왕족다운 형태이다. 즉, “차히예(chahiye, 해야 한다)”, “이 사람은 이것을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그 영혼과 낭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너희가 싫어하는 영혼에 대해 끊임없이 낭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남들을 보는 원반을 돌리게 된다. 저 낭비적인 관계는 너희가 애착의 제거자가 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애착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충동으로 인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완전히 지쳤다!” 너희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너희의 지각을 끌어당길 것이다. 너희의 시간이 그런 것에 낭비될 것이며, 너희의 지각도 거기에 낭비되고 너희의 힘도 거기에 낭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의 것은 이 관계이다. 두 번째의 것은 없어질 사랑이나 성취를 바탕으로 한 애착이나 의존, 또는 누군가 일시적으로 너희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가지는 애착이나 의존이다. 이것도 역시 로직(세속적)과 아로직(영적) 관계로 너희의 지각을 끌어당긴다. 로직 삶에서는 너희가 육신의 관계에서 사랑과 지원과 성취를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는다. 그러면 너희는 그 애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그들에게 너희의 지각이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너희가 로직 관계들을 놓아버리면, 아로직 관계에서도 그와 똑같은 것들이 너희의 지각을 끌어당긴다. 즉, 그것들은 쉽게 너희의 지각이 의존하게 만든다. 이것도 역시 몸을 가진 존재들과의 관계이다. 삶에서 문제를 겪을 때, 또는 마음 속에 어떤 혼란함이 있을 때, 너희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희에게 어떤 일시적인 도움이나 일시적인 성취를 준 영혼, 또는 너희가 애착을 갖고 있는 영혼만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그런 애착을 가진 영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들 자신을 정당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버지는 몸이 없고 미묘하다; 몸을 가진 형태의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잊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 한 분과 모든 성취의 관계를 맺으면, 모든 관계를 경험하고 지원의 공여자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면, 비록 밥다다는 무체이고 미묘하지만 사랑의 굴레에 너희들에게 묶여 있다는 점이다. 그는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형태의 느낌을 준다.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너희들은 지식을 통해서 한 아버지와 모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모든 관계를 너희의 실제 삶에서 실천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신봉의 길에서도, 가장 고귀한 신봉자인 미라는 단지 비전만을 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도 했는데, 지식의 화신인 자녀들, 지식의 대양의 직계 자녀들이 모든 성취의 바탕인 분, 지원의 공여자인 아버지를 육신의 형태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나? 그러니 너희들은 왜 전능한 권위자를 제쳐놓고, 등수대로 능력을 가진 영혼들을 지원으로 삼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각 속에 매우 심오한 이 카르마의 계정도 또한 간직해야 한다. 카르마의 계정은 매우 심오하다. 너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너희들이 어떤 영혼에게서 일시적인 지원을 받거나, 어떤 사람을

너희의 성취의 바탕으로 삼으면, 그 다음 카르마티트가 되는 대신에 너희의 지각이 그 영혼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카르마의 굴레를 만들게 된다. 한 사람은 주고 다른 사람은 받았으니, 영혼과 영혼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주고받는 교환을 통해 잔고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뭔가를 끝냈느냐? 그럴 때, 너희들은 마치 너희가 발전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그런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라, 카르마의 굴레의 잔고를 축적하는 것이다.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카르마의 굴레에 묶인 영혼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카르마의 굴레의 짐을 가진 영혼은 기억의 순례의 단계에 완전히 안정되는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항상 기억의 과목에서 약할 것이다. 그들은 지식을 듣고 설명하는 데에는 똑똑할지 몰라도 “본질로 충만해(essence-full)”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장애물의 제거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봉사가 늘어나게 만들겠지만, 그 성장은 올바른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강의를 하지만, 자신의 카르마의 굴레의 짐 때문에 빠르게 발전하지 못한다. 즉, 그들은 날아가는 단계의 속도를 경험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육신의 관계는 너희가 위대한 버린 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너희의 육신의 관계들을 체크해서 너희가 혐오감을 갖거나 또는 성취나 지원을 받는 형태로 어떤 사람에게라도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여라. 즉, 너희의 지각이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여라. 너희의 지각이 거듭 반복해서 어떤 사람에게 끌리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짐이 있다는 증거이다. 어떤 짐이 있으면, 언제나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카르마의 짐이 되어서, 비록 너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너희의 지각이 그것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이해하느냐? 지금까지 바바는 몸에 관련된 한 가지 것만을 말했다.

자, 너희 스스로에게 물어 보아라: 나는 모든 육신의 관계를 버렸는가? 아니면 오직 로킵(세속)의 모든 것만을 버리고 나서, 그것들을 알로킵에서 만들었는가? 카르마티트가 될 영혼들은 또한 이 카르마의 굴레도 버려야 한다. 따라서 브라민들에게는, 이 관계를 버리는 것이 진정한 버림이다. 이제 너희는 버림의 의미를 이해하느냐? 나중에 바바가 너희에게 더 말해줄 것이다. 이것은 버림에 관한 주간 코스이다. 오늘의 수업을 확실하게 했느냐? 브라민들의 특기는 위대한 버린 자가 되는 것이다. 버림 없이는 행운을 얻을 수 없다. 너희들은 너희가 단지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스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버림의 의미는 브라마 쿠마르와 쿠마리스에게는 더 심오하다. 알겠느냐? 앗차.

끊임없이 이기심이 없는 이들에게, 모든 이들의 시혜자이며 모든 성취를 봉사에 사용함으로써 축적하는 이들에게; 공여자의 자녀들로서 끊임없이 공여자인 이들에게, 일시적인 성취를 취하는 것에 대해 사심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위대한 기부자이며 모든 이들에게 끊임없이 좋은 소망과 자비로운 느낌을 갖는 축복의 공여자인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낸다.

#### **밥다다가 선생들을 만나심:**

너희 봉사자 영혼들은 아버지와 대등하게 되겠다는 하나의 목표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너희가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선생과 도구가 된 것처럼, 봉사자 영혼들도 아버지의 의무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져 있다. 아버지의 미덕과 도구인 봉사자들의 미덕은 같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과 끊임없이 같은지를 체크하여라. 너희들이 하는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대등한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점검을 한 후에, 그것들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바꿔라. 너희 스스로를 점검함으로써 뭔가를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는 봉사자이면서도, 모든 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또 모든 이에게서 초연하듯이, 너희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봉사함으로써 모든 이에게서 영적으로 사랑 받을 것이다. 이와 함께 너희들도 또한 모든 이들에게서 초연함을 유지할 것이다. 아버지의 주된 특기는 초연함과 사랑함의 정도가 같다는 것이다. 봉사에 있어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너희의 지각의 요가로 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다른 모든 이들로부터 초연해라. 이것이 아버지와 대등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생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 특기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 모두 봉사에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때로는 초연해야 하고 때로는 사랑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않으며, 반면에 너희가 사랑에 사로잡혀서 봉사를 하면 그것도 역시 옳지 않다. 그러므로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되 초연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오직 그렇게 할 때에만 봉사에 성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얻는 성공이 적으면, 틀림없이 사랑함과 초연함의 균형에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또한 초연한 이를 뜻한다.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단계이다. 이것이 연꽃과 같은 삶이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샹티들이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묘사되는 것이다. 그들은 연꽃처럼 사랑하면서 초연하기 때문에,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너희 봉사자들은 모두 연꽃 위에 앉아 있다, 그렇지 않느냐? 자리는 너희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 단계는 자리의 형태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누가 연꽃 위에 실제로 앉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연꽃의 자리에 앉아 있어라. 항상 연꽃이 결코 진흙 속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라. 앗차.

#### **밥다다가 쿠마르들을 만나심:**

너희의 쿠마르의 삶에서 아버지에게 속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행운의 징표이다! 너희들은 많은 굴레에 묶이지

않고 구해졌다는 것을 느끼느냐? 쿠마르의 삶은 많은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의미한다. 너희들은 어떤 종류의 굴레도 없다. 심지어는 몸을 의식하는 굴레조차도 없어야 한다. 몸을 의식하는 것에서 모든 굴레가 온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영혼들, 형제들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계속 나아가거라. 이런 자각을 가짐으로써, 너희들은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쿠마르의 삶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희의 생각이나 꿈에서조차도 나약함이 없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의 제거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 걷고 돌아다니는 동안 너희가 영혼이라는 자연스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를 볼 때 영혼을 보아라. 뭔가를 들을 때 너희 자신을 영혼으로 여기면서 들어라. 절대로 이 교훈을 잊지 말아라. 쿠마르들은 봉사에서 아주 많이 앞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만일 봉사를 하는 동안에 자신에 대한 봉사를 잊으면 장애가 온다. 쿠마르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장애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과 세계에 봉사하는 것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봉사에 너무 바빠서 너희 자신에 대한 봉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쿠마르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쿠마르들은 육신의 힘이 있고, 너희들은 또한 결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너희는 이 두 가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는 기술이 너희를 상승의 단계에 들어가기 해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봉사와 세계에 대한 봉사의 균형이 있을 때, 계속해서 장애가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너희 쿠마르들은 끊임없이 너희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나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그런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었느냐? 일반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따라서 누가 너희의 인생의 동반자이나? (아버지입니다.) 너희들은 그런 참된 동반자를 결코 어디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동반자가 아무리 사랑스럽다 해도, 육신의 동반자들은 결코 항상 동반자의 책임을 다하지는 못하는 반면에 이 참된 영적인 동반자는 끊임없이 동반자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쿠마르들은 혼자이나 아니면 결합되어 있느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다른 누군가를 너희의 동반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어려움이 닥치거나 몸이 아플 때,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는 누군가를 동반자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것을 낭비적인 생각으로 여기고, 항상 1초 만에 그것을 끝내라. 왜냐하면 오늘은 너희가 그 사람을 너희의 동반자로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내일도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일시적으로 너희의 동반자로 만드는 데 무슨 유익이 있느냐? 따라서 끊임없이 너희 자신이 결합되어 있다고 여길 때, 전능한 권위자가 너희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생각들이 끝날 것이다. 태양 앞에서 어둠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야는 전능한 권위자 앞에 있을 수 없다. 그런 다음에야 너희 모두가 마야의 정복자가 될 것이다. 앗차.

**Blessing:** 용서의 대양 마스터가 되어, 용서하는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어라. 어떤 영혼이 너희의 단계를 동요시키려 하거나 너희에 대해 자애롭지 못한 감정을 가지는 경우엔 자애로운 너희 태도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만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용서의 대양 마스터가 되어 그들을 용서해라. 너희의 용서는 그 영혼에게 가르침이 될 것이다. 오늘날 너희가 영혼들에게 가르침을 주면, 그들 중 일부는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좋은 염원과 협조의 축복을 준다는 뜻이다.

**Slogan:** 변함없이 행복한 상태에 머무는 자들만이 자아와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